

조기호 시집



전주시립완산도서관



EM290819

전주성

全州城



신아출판사

조기호
전주성

인쇄 2016년 06월 03일

발행 2016년 06월 08일

지은이 조기호

발행인 서정환

펴낸곳 신아출판사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 1길 16(태평동 251-30)

전화 (063) 275-4000 · 0484 · 6374

팩스 (063) 274-3131

이메일 shina2347@naver.com sina321@hanmail.net

출판등록 제465-1984-000004호

인쇄 · 제본 신아출판사

저작권자 © 2016, 조기호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by Cho Giho

All right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un part un any form.

저자와 협의,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ISBN 979-11-5605-336-1 06810

값 10,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
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3968)

Printed in KOREA

| 목차 |

제1부
전주성

전주성 1	— 14
전주성 2	— 16
전주성 3	— 17
전주성 4	— 19
마루보시	— 20
물왕멸	— 22
한벽당	— 24
서학동 1	— 26
서학동接鶴洞 2	— 28
피병원 옆 화장터	— 29
싸전다리 아래 풍경	— 32
싸전다리	— 34
선미촌	— 36
견훤산성	— 37
귀신사 남근석	— 39
임봉리 방죽	— 40
통시암	— 42
만추	— 45

제2부

새 전주 팔경

- 대나무 숲 서걱거리던 무성한 바람 — 48
- 이팝꽃 흐드러져 부러진 화살 — 50
- 새 전주팔경 — 52
- 다가산 이팝꽃 피면 — 54
- 그 한봄 다가산 — 56
- 가련산 노을 퍼다 연꽃 속에 심어놓고 — 58
- 덕진 방죽 연꽃 소리 — 60
- 비비낙안飛飛落雁 — 61
- 푸르스름 종소리 완산성에 떨어지고 — 63
- 휘영청 맑은 서기 달을 따다가 — 65
- 중바위 — 66
- 위봉폭포 — 67
- 위봉산성의 봄 — 69
- 삼천세우 — 71
- 보강재 — 73
- 배미실 타령 — 75
- 불탄리 고개 — 77
- 부채 — 79
- 돌아누운 인심도 빨아서 강변에 넣어놓고 — 81
- 억새꽃 — 83
- 슬픈 영화 — 84

제3부

물총새

꽃잎은 흩날리는데 — 88

꽃바위 절 — 89

저녁노을 헤픈 날 — 90

물총새 — 92

가을 소묘 — 94

목 대궁 한 줄기 가뭇없이 새어나와 — 95

민들레 가시내야 — 97

변두머리邊頭痛 — 98

백동리栢洞里 가는 길 — 104

가난 이삭 줍기 — 109

뉴퐁치마 — 110

세르 두루마기 — 111

석정 시인 — 112

싸랑부리 — 116

미친놈 마령 — 118

영원히 창성하라 전라예술이여! — 122

제4부

전주 십미

- 노을빛에 감아 도는 남고진 종소리 주워 먹고 — 126
녹두꽃 떨어지면 창포장수 울고 간다 — 127
고샅 인정 아우러져 소리로 먼저 오고 — 129
새벽이면 돌는 해를 파라시로 따 담아서 — 131
사각사각 익은 누님 응달 같은 깊은 맛에 — 132
종남산 기운 내린 송광사 범종소리 자옥이 퍼지듯이 — 134
신동 황토배기 무 — 135
자두꽃 흐드러진 처가에 가는 길 — 136
비비정 지는 해를 가슴에 가득 담아 — 138
어머님 치마폭에 뜨는 향기 — 140
전주 복숭아 — 142
항아리 통술집 — 143

제5부

조깅데기 술집

일출 — 146

조깅데기 술집 — 147

허기 구멍 — 148

처방약 — 149

그 긴 여름의 이명과 귀머거리 — 150

떡살구 — 157

진북사 뒷산에는 — 159

적선 — 161

귀명창 — 162

동학을 앓는 사람들 — 164

신호등과 싸전 — 166

한 걸음 걸었구나 — 168

헤어져 돌아서면 — 169

비취꽃 — 171

제6부

건지산네 유월

유월전쟁은 그렇게 왔습니다 — 174

건지산네 유월 1 — 176

건지산네 유월 2 — 178

어린 학도병 — 180

오늘도 걷는다마는 — 183

피난길 — 186

슬픈 전리품 — 188

석유창고 폭격 — 190

9·28 수복하던 날 — 192

家內遺事 其一 — 197

家內 遺事 其 四 — 201

紀異遺事 其一 — 203

紀異遺事 其二 — 206

紀異 遺事 其 3 — 208

紀異 遺事 其 4 — 210

갯배기마을 우화 — 212

제4부
전주 십미

노을빛에 감아 도는 남고진 종소리 주워 먹고

- 남천 모래무지

아침저녁 떨어지는 남고사 범종 소리를
빼끔빼끔 받아먹고 자라다가
남천 정갈한 냇바닥 모래 속에 은둔하여 도통한

맛으로 치자면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단단하고 곧은 육질이려니

간간하고 매옴한 모자조림으로
날마다 도시락 반찬을 싸 오던
떡전거리 그 가시내
이제는 환갑 너머 할머니로 남아 가지고

모자지짐이 부침개를 뒤집으며
막소주 한 움큼에
모자매운탕 한세월 뜨고 나더니
알싸한 진흥 눈가엔
해거름 노을빛만 짙게 묻어 배어난다.

녹두꽃 떨어지면 창포장수 울고 간다

- 교동 황포묵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 윗머리라니 묵정밭 일군 인심으로
자만동 녹두포 샘물 떠다
무지랭이 한 서린 민중 색깔 물을 들인 황포묵은

겨울밤 긴긴 이야기
난들난들 채로 썰어 얼큰하게 무쳐먹고
이것저것 고루 넣어 색깔부터 군침 도는
비빔밥 상석으로 웃고명 되어 호강을 하네.

미나리 강회무침 새콤한 초장 어우르고
달고 과즙 넉넉한 전주 배와 육회로 싸잡아서 놀았지만
맛이야 그나저나 전라감영 파랑새야 어찌할거나

가뭇하고 기근을 끼고 다닌다는 너를 본 우리 며느리

담던 뒷박 양식 아껴 저녁 곡식 털어놓네

새야 녹두새야 녹두꽃 떨어지면

청포장수 올고나 간단다.

고샅 인정 아우러져 소리로 먼저 오고

- 신평리 애호박

툑 하면 신평리 호박 떨어지는 소리
쿵 하면 송천동 큰애기 엉덩방아 찢는 소리

추천대 휘어감아 용산다리 내리는 물소리로
그것들 모두 아우러져 신평리 애호박을 키웠나니

모나게 송송 썰어 설경설경 익을 즈음
갓은양념 버무려서 호박무침 맛을 내고

동글동글 납작납작 썰어내어
노릇노릇 전을 부친 솜씨 한번 고소하다.

송송송 얇은 채로 썰어 이울다
참기름에 들들 볶아 호박볶음 입맛 돋는데

만경강 거슬러 올라온 추젓 깊은 국물이거나 육젓으로
애호박과 새우젓의 만남 천년의 사랑.

청국장 된장찌개 우렁이 호박 넣고
도타운 인정머리 둥둥 띄워

얼마나 기막히게 맛이 좋았으면
하찮은 호박나물에 속이 상한다 하였을까.

새벽이면 돈는 해를 파라시로 따 담아서

- 서낭골 파라시(八月柿)

서낭당이 땡기머리 복사 골 큰애기는
기린봉 돌아 올라 파라시로 익은 해를
치마폭에 따 담아서

미운 올케 귀밑까지 찢어진 주둥이보담도
더 넓게 딱 벌어진 감 바지계 위에다가

채곡채곡 넣어놓아 전주성 고샅 고샅을
환하게 비추이더니

팔월보름 올 너머 사랑
바지랑대로 홍시 따듯
조심스레 총각 하나 흠쳐 따다가

물 많고 다디단 사랑
무릎께 장옷 속 갈피갈피
조신조신 넣었다가 짝지어 이르신다네.

사각사각 익은 누님 응달 같은 깊은 맛에

- 효간치 열무

우리 집 안심부름 살던
끝순이 부엌 누님

기린봉 달 따다 먹고
그늘에서 연하게 자란
임봉리 열무김치

효간치 숲 속 응달 사각사각 익은 열무
보리밥 큰 주걱 퍼서
맨손으로 척척 잘라 넣고
된장 국물 쪽쪽 찢끄러서
썉썉 이겨 입맛 돌게 비비더니

부엌 바닥 파리 깔고
양푼 채 끼고 앉아
한나절을 먹던 누님

지난 장날 싸전머리

순대 국밥집 모퉁이에서 만났는데

시방은 냉장고랑 딴채를 들여놔서

우물 속 깊은 물에 채워 둘 일 없어졌다며

내심

금반지 낀 손가락을 자랑까지 한답시고

누우런 빠드렁니를 가리는 척

불 갈퀴 같은 허드레 손을 뒤흔 내젓습디다

종남산 기운 내린 송광사 범종 소리 자옥이 퍼지듯이
- 대흥리 서초

범문 높은 송광사 법당에 앉아
만수향 피우듯이

밀화부리 때까치나 비비새가
허공에 바람 풀어 무상으로 울고 날듯이

번뇌에 그린 그림 남긴 것 하냥 없어
저렇게 서러웁듯이

싸랑부리 입맛에다 매콤한 서역 향기로
포르스름 저녁 종소리 따라

자옥한 눈썹 끝에
매캐한 미륵을 건너간다.

신동 황토배기 무

바람이 탕탕 든 가시내와 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며
짚주저리 샷갓을 둘러쓰고 앓은

무 구덩이 마개를 열 때마다
고시랑 고시랑 염불처럼 외우시던 할머니는
바람이 아니 들고도
바라같이 하늘로 가볍게 날아서 올라가시고

찬 서리 맞고 단맛 든 아내는
허벅지보다 더 탐스런
신동황토배기 무를 앞니로 쪽쪽 벗겨서
우적우적 깨물어 달게 먹더니

살진 무트림을
디딜방아 방앗공이 확 구멍 파듯
밤이 새도록 사근사근
내 콧잔등에 솔래솔래 찜어 넣는다.

자두꽃 흐드러진 처가에 가는 길 - 서원 너머 미나리

서원 너머

고개 너머

아리랑 같은 화산서원 재를 너머

미나리꽃 피면 처가에 간다던

술친구 녀석

자두꽃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 조금 불던 그런 날

황복쟁이로 소문 난 생선 집에 앉아서

삼단 같은 미나리를

다섯 소쿠리째 복국 물에 데쳐 먹더니

상큼한 미나리 맛은 서원 너머로 도망가서

풀 내만 코끝에 매달려 폴폴폴 맴도는데

미련하게 황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피씩이 웃더니만

먼저 간 아내 따라
처가에 가긴 다 글렀다며

앞니 한 대 부러진 목구멍에
막 소줏잔을 날름 털어 붓고 나서

눈가엔 술기운보담 짙은 꽃불을
설핏설핏 불힙니다

비비정 지는 해를 가슴에 가득 담아

- 한내 계장

한내 물 대밭 엮어 아금박지게 막아 놓고
고깔 같은 움막 지어
초롱불 밝혀 들고 참계를 줍습니다

농사일 다 거두어 차곡차곡 곳간에 쟁였으니
사향각시 젓고름 좀 풀어보면 어떻다고
키득거리며 숨어 보던 심술궂은 도깨비란 놈
게는 전부 놓아주고
쇠똥만 떠내려 보내
밤새도록 쇠똥딱지만
구럭구럭 주워 담았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보름이 이울도록
진간장을 달여 부어
흑이나 짜질세라
살진 배물 갈아다가 진한 국물 아우르고
갇은 양념 실고추에 생강까지 저며 올려

물 해감내마저 쫓아 보냈더니

삼천 내 밤 도깨비보다 더 옹골진 밥도둑이

안방에 들어앉아

게딱지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똑딱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넌름 먹어 치웁니다

어머님 치마폭에 뜨는 향기

- 전주 청국장

고창에서 전주로 유학 나온
친구 녀석 집에 놀러 갔다가
노루뿔 우려낸 청국장을 얻어먹고
이런, 세상에
청국장의 판 세상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지금에사 쇠고기 아니면
돼지비계 몇 칼이라도 넣고 끓이지만

옛날 어린 옛적
납작한 초가지붕 사립문 시절에는
멸치 새끼 꼬랑지도 어려워서
맨 호박 송송 썰어 넣고
어찌다가 큰 맘 먹어 두부 한 모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품고 앉으신 안방이거나
가난 담아들고 드나드신 정지 모퉁이

어머님의 치마폭에서는 항상
청국장 뜨는 내가 솔솔 풍겨 나오더니

저승에 가실 무렵에는
더더욱 짙은 향내로 고옴게 저물었습니다

전주 복숭아

천년학 가시내
몸의 것 풀고 간 자리

복숭아꽃으로
학 울음 피었습니다.

저승까지 날아오른들
정분이사 피명울 지어 입술 끝에 한 소리

숨이 멎을 듯
오색 맛을 친친 감아 돌아

목 툇운 선혈이
이 여름을 썰 터인데

어여쁜 기별은 가뭇하고 단맛만 득음에 이르러
입맞춤 꽃보다 더더욱 감치랴.

항아리 통술집

조선 팔도 어디를 뒤져봐도
지금은 그런 술집 없습니다
60년 제대복 차림으로 술배가 고프 시절
뒷골목 시음장 통술집엔
항아리를 묻어놓고
막걸리 한 사발에 십 환
왕소금 볶은 안주 단무지 한 쪽
빈 항아리 씻은 물도 취했습니다.

그때는
소나기 삼형제가 나란히 살았습니다.